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증권학회 정책심포지엄」 환영사

-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국내외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업 밸류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골든타임**
- 5월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확정, 통합 홈페이지 개설 등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흔들림 없이 추진**
- 앞으로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지난 2년간 지속해온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4.23.(火), 한국증권학회가 주최하는 「한국증권학회 제1차 정책심포지엄」(※개요 : 보도자료 3쪽)에서 환영사를 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기업 밸류업 성공을 위한 과제”이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부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2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발표된 이후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 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 밸류업 자문단」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도 마무리해 나가고 있으며, 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 개정(3.14일), 기업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4.2일), 투자자·경제단체·기업 간담회를 통한 현장의견 수렴(3~4월중) 등을 추진해 왔다고 언급하였다.

부위원장은 그간의 노력에 힘입어 국내외 많은 투자자들의 우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업 밸류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제고하고, 글로벌 자금의 유입을 유도하며, 자본시장·투자자·기업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5월중 확정·발표하여 이를 토대로 준비된 기업부터 적극적으로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업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 개설 등의 인프라 구축도 5월중 완료하겠다고 하였다. 세제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중으로 준비 되는대로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며, 3분기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완료 등 후속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지난 2년간 지속해온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은 정부와 유관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기업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투자자·금융투자업계·전문가 등의 지속적인 관심과 독려가 지속가능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환영사. 끝.

담당 부서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책임자	과 장	고상범 (02-2100-2650)
		담당자	서기관	김영대 (02-2100-2651)
			사무관	이용준 (02-2100-2644)

■ 일 시 : '24.4.23(화) 14:00~17:00

■ 장 소 : 파크원 NH금융타워2 4층 그랜드홀

■ 주 제 : 기업 밸류업 성공을 위한 과제

■ 주요 일정

사회 : 김희은(명지대학교 교수)

시간	식순	발표자(참석자)
14:00~14:20	개회사	이준서 (한국증권학회 회장)
	환영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14:20~15:50	주제발표	(기조발제) 이관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한국증시 저평가 원인 및 제도 개선 방향
		(발표1) 강창모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한국 기업지배구조 진단 및 개선 방향
		(발표2) 이성원 (트러스트자산운용 ESG운용부문대표) *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성공을 위한 제언
15:50~16:00	휴식	
16:00~17:00	패널토론	사회자 안희준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토론자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이수철 (NH투자증권 운용사업부 총괄대표)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최재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